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성탄전야예배

2021년 12월 24일(금)

예배시간 오후 7시

복음의 빛 | 노진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아기 예수여 찬양 받으소서(D. Buxtehude)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104장(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함께

1.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2.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 온 만물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길을 인도하소서
3.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 만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후렴)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니 (사 35:5-7),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회 중: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목 사: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회 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목 사: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회 중: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목 사: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회 중: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목 사: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회 중: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목 사: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못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회 중: 아멘(시 96편).

경배찬송

108장(그 어린 주 예수) **다함께**

1.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팔 위에 자네
2.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3.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서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 주사 주 품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죄의 고백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대하 7:14),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전하지 못하고 파괴한 우리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오니,

회 중: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지구와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시 145:18-19)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영광(경동찬송 14장) **다함께**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알렐루야 알렐루야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9:2-7 **김성식 집사**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문은 군복이 모두 땀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서신의 말씀

디도서 2:11-14 **김원희 집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2:1-7 목사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친교와 소식

기도

응답송

특송

설교

기도

..... 목사
..... 이은희 원사
..... 오르가니스트
대강절 캐롤(D. Besig) 이예랑 교우, 김유정 집사, 김호 집사, 김준홍 교우
“집 없는 왕” 채수일 목사
..... 설교자

보냄

*보냄찬송

123장(저 들 밖에 한밤중에) 다함께
1.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2.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3.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4.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후렴)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G. F. Händel)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뒷편에 있습니다.